마이산 명인명품관 조성 박차

진안군, 50억원 규모 '마이산 자연치유신비 체험사업' 일환

진안군은 도립공원 마이산을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마이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마이산에 집중 투자하면서 관광명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북부마이산 상가가 마이산 관광단지로 이전하면서, 기존건물에 대해 특산품과 공예품 등의 전시와 홍보, 판매를 할 수 있는 '명인명품관 조성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곳은 전통 명인들이 우리고유의 전통문화와 예술을 결합하여 전통문화예술 명품을 만드는 과정을 시연하고 홍보하면서 마이산의 신비한 역사와 전통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창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다.

명인명품관 조성사업은 50억원(지특 25 지방비25)규모로 2016년~2020년까지 추진예정인 '마이산 자연치유신비 체험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주변에 기 조성된 가위박물관과 금년 말 준공예정인 생태공원이 완료되면 마이산 종합개발계획에 따른 북부마이산에 개발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 2018년에는 마이산에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동안 청정 관광자원인 마이산 주변에 마이돈 농촌테마공원, 미로공원, 사양제 수변공원, 북부상가이전, 가위박물관 조성 등으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이 가능한 시설들이 구축되면서 관광객 증가와 주변상권 활성화로 토탈관광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관광객 증가와 관광활성화를 위해 무조건적 개발이 아닌 마이산의 보존과 개발이 합하는 공생의 원칙에 따라 마이산 주변개발을 추진하여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희망 진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완주 통과 고속도로 톨게이트 명칭 변경해야"

완주군의회 류영렬 의원, 임시회 군정질문서 "완주지역 명칭으로"

완주군의회(의장 정성모)는 15일 올해 두 번째 열리는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를 대상으로 올해 첫 군정 질문을 가졌다.

군정질문에는 류영렬 의원이 그동안의 의정생활을 통해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낀 사항을 중심으로 정책제안 및 개선사항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완주군에 총 480개소의 등록·미등록된 경로당과 사랑방에 대해 건축연도, 시설상태, 편익시설의 구비 상태별로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 개·보수해 나감으로써 어르신들의 편안한 생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자는 제안에 대해 박성일 군수의 답변을 요구했다.

현재 완주군 인접시의 명칭으로 돼 있는 완주군 통과 고속도로 톨게이트 명칭을 완주지역 명칭으로 변경할 것과 10,000㎡이상 국·공유지 집단화 지역 활용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완주군민의 특색 있고 고유한 농업브랜드와 지리적 표시제 농산물 개발·확대,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인도 통행 불편 장애물 제거, 고온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 향후 활용 대책 등 5가지 정책제안에 대해 질문을 펼쳤다.

더불어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전보인사, 읍면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관련 제반사항, 각종 물품 구입과 우편물 발송 등 지역의 소규모 업체·기관 이용 등 3가지 개선해야 될 사항도 질문을 요청했다.

/완주=이중복기자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창업 Do-Dream 콘서트 수강생 모집

완주군 창업보육센터는 2017년 제2회 완주군 창업스쿨 '창업 Do-Dream 콘서트 (이하 창업콘서트)'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창업콘서트 과정은 4월 3일부터 4월 26일까지 주 2회(월·수), 총 8회차 과정이다.

창업콘서트는 수동적 강의형태가 아닌, 각 분야 창업전문가가 트랜드에 맞는 이론교육을 제공하고, 수강생들과의 양방향 소통을 통해 함께 참여하는 콘서트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내용은 △4차 산업 혁명! 도전과 대응 △창업아이템과 사업모델 구상 △창업자를 위한 세무와 회계 △내 프랜차이즈 만들기 △성공하는 브랜드와 스토리텔링 만들기 △정부지원사업 성공노하우 △저작권을 이용한 사업화전략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공동체활력과(063-290-2482) 또는 창업보육센터(063-290-2487~8)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이중복기자

장수군, 지역특성화 민방위 훈련 실시

장수군은 15일 계북면사무소에서 주민, 민방위대원, 의용소방대원, 공무원 등 총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특성화 민방위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위기대처 능력을 높이고, 초동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목적으로 실시됐으며, 아울러 지역·직장단위별 소(小) 집단이 주체적으로 초기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계북면사무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정전, 유독가스 발생, 고립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 화재초동대응, 주민대피, 부상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이 실시됐다.

특히, 신경작용제(VX) 독살 테러와 같은 북한의 생화학무기 위협에 대비한 방독면 착용 및 상태점검, 군민행동요령 등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지역특성 맞춤형 교육을 함께 실시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군, 아동·청소년들 건강한 성장 위한

멘토·멘티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무주군은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멘토·멘티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프로그램은 총 5회에 걸쳐 진행이 되며 이달 18일 첫 만남의 날에는 청소년수련관에서 토피어리 만들기와 멘토들을 위한 자원봉사 교육, 멘티들을 위한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5월(축제의 날)에는 협동심과 관계강화를 위한 운동회를, 7월(체험의 날)에는 바닷가 캠프를 통한 갯벌체험과 화합의 시간이 마련된다.

9월(소풍의 날)에는 동물원 나들이와 놀이기구 체험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 11월(맺음의 날)에는 사과따기 체험을 통해 관계를 돈독히 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멘토로 참여하게 된 김 모 학생은 "평소에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좋은 경험을 하게 됐다"며 "동생들이 밝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형으로서, 오빠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멘토·멘티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무주와 설천, 안성, 무풍고등학교 학생 25명(멘토)과 무주와 적상, 안성, 설천, 무풍 초등학교 학생 25명 등 총 50명으로, 군에 따르면 참여 고등학생들은 멘토링 프로그램에 적합한 인성을 가진 학생들로, 아동들은 정서적 지원과 사회성 향상이 필요한 학생들로 선정했다.

/무주=전문선기자

장수군, 기능성 소재 클로렐라 무상보급

원예작물 생산 위해 4월부터

장수군은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을 위해 사과, 토마토, 오이, 고추, 쌈채소 농가에 30톤의 기능성 소재 클로렐라를 4월부터 무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기술센터는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해 장수사과영농조합법인과 장수토마토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클로렐라 대량배양기 및 농업적 활용기술 등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업기술센터는 2016년 시험연구를 추진 클로렐라를 상추, 사과 등 작물에 처리한 결과 상추는 고온기 추대억제와 생산량 증대 효과가 있었으며, 사과는 당도가 높아지고 저장성이 증가하는 효과를 나타냈다.

군은 클로렐라 활용 선도 지역으로 올해 '클로렐라 활용 고품질 사과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유기농업과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신소재 클로렐라 활용 기술을 농가에 확대 보급해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 증대와 농가 경영비 절감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할 방침이다.

클로렐라는 농작물에 활용하면 품질 및 저장성 향상, 생육촉진, 수량증대, 병충해 방제 등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장수=고판호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지역 소식통

무주군, 특화품목 전문가 육성

"농민도 부자되는 무주"실현에 주력하고 있는 무주군이 고추와 토마토, 블루베리와 아로니아, 사과와 망태버섯, 천마, 상황버섯, 옥수수, 갈색거저리 등의 특화품목에 대한 전문가 육성에 나선다.

이번 프로젝트는 농촌진흥공무원 역량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관련 분야 선·후배 공무원 24명이 함께 실증 포장을 운영하며 12월까지 이론학습과 실습을 병행하게 된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신상범 기술기획담당은 "관련 분야 전공자들이 아닌 지도·연구직 공무원들이 늘고 있는데다가 이론만으로는 농업인 지도에 한계가 있어 시작을 하게 됐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직접 농사도 지어보고 관련 작목에 대한 전문 교육과 연구를 진행하면서 전문성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기자

진안군, 수박재배기술 교육생 모집

진안군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시설하우스 수박재배기술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수박재배기술 교육은 시설재배, 방임재배, 소과종재배 교육 등 3개 과정으로 이뤄지며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수박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론교육 1회, 수박 현장 컨설팅 6회, 수박 선진지 견학 등 총 8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수박방임재배교육은 구미시농업기술센터 이웅학 지도사가, 시설수박재배교육은 전북농업기술원에서, 소과종 수박재배교육은 고창군농업기술센터와 소과종 종자회사인 참씨앗바이오에서 전문강사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기자

무주군,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

무주군은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 중인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 사업을 마무리했다.

총 사업비 3천여 만 원이 투입된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은 △주택 출입로와 경사로를 보수하거나 설치하고 △출입문과 손잡이, 바닥 등의 내부시설을 개조한 것으로, 군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등록 장애인들 중 12명의 대상자를 선정해 지난 2월부터 추진해왔다.

민원봉사과 김한수 건축담당은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사업은 장애를 안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인 만큼 앞으로도 더불어 함께 사는 무주 실현을 위해 혜택을 늘리고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기자